

Session 2 The Fellowship of the Burning Heart

불타는 마음의 교제

I. THE ULTIMATE REALITY OF THE KINGDOM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실제

- A. Growing in prayer is deeply connected with embracing the first commandment. The Spirit's first agenda is to establish the first commandment in first place in the Church. Jesus identified this as the highest priority to God and the first calling in our life and for our ministry.

우리가 기도가 성장하는 것은 첫째 계명을 살아가는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성령님의 첫 번째 목적은 교회 안에 첫째 계명을 최우선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일임을 확인해주셨으며, 우리 삶과 사역에 있어서의 첫 번째 부르심임을 알려주셨다.

³⁷ Jesus said to him,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³⁸ This is the first and great commandment." (Mt. 22:37-38)

³⁷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³⁸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 22:37-38)

- B. The command to love God with all our heart does not begin with us. It is one expression of the ultimate reality of the kingdom that existed long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namely, God's heart burning with perfect love within the fellowship of the three persons of the Trinity.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우리가 존재하면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이는 세상이 창조되기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던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실제, 즉 이는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하심 안에 있는 완전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 C. The essence of how God thinks and feels is summed up in wholehearted love. The Lord has great power and wisdom, which He uses solely to express His love.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느끼시는 지의 본질은 전심을 다한 사랑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주님은 큰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시며, 그분은 이를 오직 사랑을 나타내실 때에만 사용하신다.

- D. We understand the first commandment best by seeing it in its eternal context of the fellowship in the Godhead, rather than seeing it as one aspect of kingdom ethics. God wants us to respond in wholehearted love because it is *who He is* and *who He created us to be*. We were created in His image for wholehearted love. It is the essence of salvation and our relationship with God.

우리는 첫째 계명을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하심을 배경으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윤리의 한 부분으로 봐서는 이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심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는 **그분 자신이 그러하기 때문이며,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심으로 사랑하시는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 이는 구원의 본질이며,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의 본질이다.

- E. One foundational premise in Scripture is that God loves us with the same intensity that God loves God. We must abide in and stay focused on this truth (Jn. 15:9; 17:23).

성경의 근본적인 전제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시는 동일한 크기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진리 안에 거해야 하며,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한다 (요 15:9; 17:23).

⁹“As the Father loved Me, I also have loved you; abide in My love.” (Jn. 15:9)

⁹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 15:9)

F. The love burning in God’s heart has at least five distinct and deeply interrelated expressions.

하나님의 마음 안에 불타고 있는 사랑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는, 적어도 다섯 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

1. **God’s love for God:** Each person in the Trinity intensely loves the others with all His heart.

하나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성삼위 하나님 안의 각각의 위격은 서로를 전심으로 사랑하신다.

2. **God’s love for His people:** He loves His people with all of His heart, mind, and strength. He loves the redeemed with the same intensity that He loves within the fellowship of the Trinity.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은 자신의 백성들을 마음을 다해, 생각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신다. 그분은 구원받은 자들을 사랑하시되, 그분이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하심 안에서 사랑하시는 것과 동일한 분량과 크기로 사랑하신다.

3. **Our love for God:** The Spirit imparts God’s very own love to His people (Rom. 5:5).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성령님께서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자신의 백성들 안에 부어주신다 (롬 5:5).

4. **Our love for ourselves:** We love ourselves in God’s love and for God’s sake.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

5. **Our love for others:** We love others in the overflow of experiencing God’s love (1 Jn. 4:19).

다른 이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넘쳐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된다.

G. These five expressions of love constitute what I refer to as **the fellowship of the burning heart**. Our greatest destiny is to participate in the burning love in the family dynamics of the Trinity.

이러한 사랑의 다섯 가지 표현은 내가 **불타는 마음의 교제**라고 부르는 것을 구성한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부르심은 성삼위 하나님의 한 가족되심의 역동성 안에 있는 불타는 사랑에 동참하는 것이다.

H. **Abide in love:** To “abide in love” means continually to live in it and reflect on it. This requires that we *stay focused on* living in God’s love in its various expressions. We are to set our heart to go deep in our understanding of this.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안에 지속적으로 살며, 지속적으로 이것을 나타내며 사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이해해 나가기로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한다.

I. Our primary life goal is to be focused on receiving and expressing God’s love. We are to make this the primary preoccupation of our life before, during, and after revival. We do not need to wait for a special season of revival to engage deeply in the love of God.

우리 삶의 주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이를 드러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 오기 전에도, 부흥 중에도, 또 부흥 이후에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잠기기 위해 특별한 부흥의 시즌이 오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⁹“As the Father loved Me, I also have loved you; abide in My love.” (Jn. 15:9)

⁹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 15:9)

- J. The essence of eternal life is to know God, which is more than just information. It speaks of experiential knowledge. Salvation is much more than escaping hell; it is an invitation to fellowship with God (1 Cor. 1:9; 1 Jn. 1:3), to participate in *the fellowship of the burning heart*.

영생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이는 단지 어떤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선다. 이는 경험적인 지식을 말한다. 구원은 지옥에 가지 않는 것만을 말하지 않으며, 이는 하나님과의 교제하심으로의 초청이며 (고전 1:9; 요일 1:3), 불타는 마음의 교제하심에 참여하는 것이다.

³“This is eternal life, that they may know You,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Jn. 17:3)

³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 17:3)

- K. Examples include the disciples at Emmaus (Lk. 24:32) and John the Baptist, a burning lamp (Jn. 5:35) who prophesied of a baptism of fire (Lk. 3:16) that was seen at Pentecost (Acts 2:3).

이것의 예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서 볼 수 있으며 (눅 24:32), 켜서 비추는 등불인 세례 요한 (요 5:35)에게서 볼 수 있는데, 그는 불의 세례를 예언했고 (눅 3:16), 이는 오순절에 성취되었다 (행 2:3).

II. GOD'S LOVE FOR GOD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 A. The first expression of perfect love is found in the relationships within the Trinity. The Son loves the Father (Jn. 14:31), and the Father loves the Son (Jn. 3:35; 5:20; 15:9; 17:23).

온전한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은 성삼위 하나님 안의 관계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며 (요 14:31),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신다 (요 3:35; 5:20; 15:9; 17:23).

- B. There is one God who forever dwells in three distinct persons, who are coequal as divine persons. The Father, Son, and Holy Spirit each fully possess all of God's attributes. Each person is different from the others in function and authority in their work, which is fully unified.

하나님께서서는 개별적인 세 위격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며, 이 세 분은 서로 동격이며 신성을 가지시며,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님은 각각 하나님의 속성들을 충만하게 가지고 계신다. 각각의 위격은 서로 역할과 권위가 다르며, 서로 충만하게 연합되어 계신다.

- C. The way that God loves within the Trinity is the *only* way He loves us. He *always* loves in fullness. His love never diminishes or grows because it is infinite in measure and eternal in duration. He does not love us with only part of His love, for that would deny His character.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분은 **항상** 충만함으로 사랑하신다. 그분의 사랑은 절대 줄어들거나 더 커지지도 않는데, 이는 그분의 사랑은 무한하며,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사랑의 일부분만을 가지고 사랑하시지 않는데, 이는 그분의 성품을 벗어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 D. The union in the Godhead reveals the nature, quality, and intensity of His love. The relationships in the Godhead are the *model* and *source* whereby we relate to God and others. They give us a picture of what perfect love is, of how He relates to us, and how we relate to Him.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연합은 그분의 사랑의 성격과, 본질, 그리고 사랑의 크기를 보여준다. 성삼위 안의 이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다른 이들과 관계를 가지는 것에 있어 **모델**이자 **근원**이 된다. 이는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그분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그분과 어떻게 관계를 가져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 E. Jesus has joy and enthusiasm in His love for the Father. He is moved in loving the Father and being loved by Him. Jesus is not bored in His relationship with the Father. One implication of this is that Jesus' enjoyment of His relationship with His people is an expression of how He enjoys His relationship with His Father.

예수님께서서는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로부터 사랑 받으시는 것으로 인해 마음이 움직이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지루함을 느끼지 않으신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의 관계를 즐겨워하시는 것은 그분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얼마나 즐겨워하고 계시는지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III. GOD'S LOVE FOR HIS PEOPLE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 A. Jesus declared that He loves the redeemed with the same intensity with which His Father loves Him (Jn. 15:9). He said that the Father also loves the redeemed with this same intensity (Jn. 17:23). Father, Son, and Spirit love the redeemed with all Their heart, mind, soul, and strength.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이 구원받은 자들을 사랑하시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크기로 사랑하심을 선포하셨다 (요 15:9). 그분은 또한 아버지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동일한 크기로 사랑하심에 대해 말씀하셨다 (요 17:23).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을 그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신다.

⁹“As the Father loved Me, I also have loved you; abide in My love.” (Jn. 15:9)

⁹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 15:9)

²³“...that the world may know that You...have loved them as You have loved Me.” (Jn. 17:23)

²³ ...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 17:23)

- B. Love, by definition, demands an expression—to be shared and multiplied. God wanted others to experience the joy of the Trinity’s experience of perfect love. He created human beings to participate in this glorious fellowship because **He is love**. God does not lack anything; He has no need. He did not create humans because He was lonely or discontent or had an emotional need.

이것이 정의하는 것처럼, 사랑은 나누어지고 배가됨으로 표현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즐거움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인간이 이 영광스런 교제하심에 참여하도록 지으셨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시다. 그분은 자신이 외롭거나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혹은 감정적인 필요가 있어서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니다.

IV. OUR LOVE FOR GOD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 A. The Spirit’s first agenda is to establish the first commandment in first place in us (Mt. 22:37-38). He loves us with all His heart and wants us to respond with all of our love. He wants us to bring our “all” into the relationship, not because He feels lonely and rejected when we love others, but because **He is wholehearted love**. He is worthy of our love. It is His inheritance to receive our love. We will only enter into our full inheritance (destiny) as we love God with all of our heart.

성령님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우리 안에 첫째 계명을 가장 첫째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다 (마 22:37-38). 그분은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시며, 또한 우리가 전심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이 관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붓기를 원하시는데, 이는 우리가 다른 이를 사랑하면 그분이 외롭게 느낀다던가 거절감을 느끼셔서가 아닌, 그분 자신이 **마음을 다한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분이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는 것은 그분의 유업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에만 우리의 충만한 유업(부르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 B. The Holy Spirit imparts God’s very own love to His people (Rom. 5:5). We will not love God more by *trying to love harder*, but by *seeing more* of His love for us.

성령님께서서는 그분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부으신다 (롬 5:5).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그분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더욱 알게 됨으로**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된다.

- C. Jesus defined loving God as being rooted in obedience (Jn. 14:15, 21, 23; cf. Deut. 6:1-9).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순종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으로 정의하셨다 (요 14:15, 21, 23; 비교, 신 6:1-9)

¹⁵“***If you love Me, keep My commandments.***” (Jn. 14:15)

¹⁵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 14:15)

- D. **The spirit of liberty**: Liberty is found in the fellowship of the burning heart—it is being liberated on the inside to feel and express God’s love. It is being liberated from the spirit of condemnation, rejection, lust, dullness, and boredom. It is not about having freedom to live in compromise, e.g., “engaging in parties” that other believers do not feel right about engaging in. It is having freedom to live with an exhilarated heart as we encounter God’s heart in our daily walk.

자유함의 영: 자유는 불타는 마음의 교제함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 이는 내면이 자유로워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표현함을 말한다. 이는 정죄함의 영, 거절과 정욕, 둔하고 지루함의 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타협 가운데 살아갈 자유, 즉 다른 성도들이 불편하게 느낄 “무리에 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함으로 생명력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유함을 말하는 것이다.

V. OUR LOVE FOR OURSELVES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

- A. The redeemed are to love themselves in God’s love and for God’s sake. We love ourselves through the lens of the revelation of Jesus, His cross, and our great worth to Him. We have received the very gift of God’s righteousness (2 Cor. 5:21). We have indescribable value and worth to Jesus. Seeing this changes the way we feel about God, our life, and others.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해야 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계시와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큰 가치가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반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는 선물을 받은 자들이다 (고후 5:21). 우리는 예수님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치와 존귀함을 가진 존재들이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우리 삶과 다른 이들에 대해 느끼는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된다.

³⁹“*And the second is like it: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Mt. 22:39)*

³⁹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마 22:39)**

- B. Seeing ourselves and our new identity, destiny, and worth in God’s love empowers us to love ourselves in God. We will never love others more than we love ourselves in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며,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과 부르심, 그리고 존귀함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할 힘을 부여준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할 수 없다.

- C. The Bible calls us both *to love ourselves* (Mt. 22:39) and *to hate our lives* (Lk. 14:26).
We love who we are in Christ—our new identity in Christ and what we do in God’s will.
We hate our lives—who we are outside of Christ and what we do outside of God’s will.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으며 (마 22:39), 동시에 **우리의 목숨을 미워하라**고 말하고 있다 (눅 14:26).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미워해야 한다 – 이는 그리스도를 벗어난 우리 자신을 말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D. Bernard of Clairvaux called it *loving ourselves for His sake*—being jealous to be all that He called us to be, for His sake. Jesus does not want us to walk in false humility, which minimizes how much *He enjoys loving us* and His desire for us to *enjoy being loved by Him*. We magnify Jesus as we love ourselves in agreement with His love for us and honor His “investment” in us.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는 이를 **그분을 위해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불렀다. 이는 그분이 우리를 향해 부르신 모든 모습에 대해 질투함을 가지고 성취해나가는 것을 말하며, 이는 그분을 위해서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거짓 겸손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데, 이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기를 즐거워하시는지를 축소해버리며,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사랑 받는 것을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갈망을 축소해버리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에 동의하여 우리 자신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분의 “투자”를 가치 있게 여김으로 예수님을 높여야 한다.

- E. Jesus delights in who we are in the grace of God. He wants us to love *the person* that He loves. He wants us to enjoy how much He enjoys us—to delight in how He delights in us.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에게 사랑받고 있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것을 원하신다**. 그분은 그분이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대해 기뻐하시는 만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뻐하기를 원하신다.

⁴*But you shall be called Hephzibah...for the LORD delights in you...⁵And as the bridegroom rejoices over the bride, so shall your God rejoice over you. (Isa. 62:4-5)*

⁴ ... 오직 너를 험시바라 하며 네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 ⁵ ...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사 62:4-5)

¹⁹*He delivered me [David] because He delighted in me. (Ps. 18:19)*

¹⁹ ... 나를 기뻐하시므로 나[다윗]를 구원하셨도다 (시 18:19)

- F. We must receive what the Word says about the activities we perform in God’s will, though many are small and go unnoticed by others. In fact, most of our love and service to Jesus consists of small acts, but they move His heart, and He will reward us forever for them. Eternal rewards are about Jesus expressing publicly how He feels about the way we love Him in this life.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행동들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비록 많은 일들이 작고 다른 이들에 의해 인식되지 않을지라도 말이다. 실제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대부분은 작은 행동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이 일들은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며, 그분은 이에 대해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것이다. 영원한 상급은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한 것들에 대해 그분이 어떻게 느끼시지를 공개적으로 나타내시는 것이다.

¹⁷*“Well done...you were faithful in a very little, have authority over ten cities.” (Lk. 19:17)*

¹⁷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눅 19:17)

²¹*“You were faithful over a few things, I will make you ruler over many things.” (Mt. 25:21)*

¹⁷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한글 KJV: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하고 (마 25:21)

⁴²*“Whoever gives one of these little ones only a cup of cold water in the name of a disciple, assuredly...he shall by no means lose his reward.” (Mt. 10:42)*

⁴²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 10:42)

- G. Ask the Holy Spirit to let you see what *He* sees and feel what *He* feels when *He* looks at you. When we know that His eyes are on us, we feel no need of striving to get the eyes of people to recognize our accomplishments; we do not need the time and attention of the powerful and popular people, because we already have the love, time, and attention of the most glorious Man.

C. S. Lewis wrote, “True humility is not thinking less of yourself; it is thinking of yourself less.”

성령님께서 당신을 보실 때 어떻게 느끼며 어떻게 보시는지를 당신이 느끼고 볼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그분의 시선이 우리를 향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성취를 인식하도록 다른 이들의 시선을 끌려고 노력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더 이상 힘있고 유명한 사람들의 관심과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데, 이는 우리가 이미 가장 영광스러운 한 분의 사랑과 시간과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C.S. 루이스는 이와 같이 썼다, “참된 겸손은 당신 자신을 작게 여기는 것이 아니다. 이는 당신 자신에 대해 적게 생각하는 것이다.”

- H. Self-hatred results in a deep sense of rejection that damages our ability to love and receive love. God desires to liberate our heart fully from self-hatred so that we do not wish we were someone else, but are genuinely thankful for being who He made us to be (with our own specific calling).

자기 혐오는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망가뜨리는 깊은 거절감을 만들어낸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자기 혐오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 자신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대로 (우리를 향한 특별한 부르심에 대해서도) 진실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

- I. Loving ourselves includes not despising our appearance, gifting, or ministry assignment, no matter how small it is. We thank Jesus for who we are in Him and for the unchangeable aspects of our appearance, abilities, personality, and life circumstances—family, parents, nationality, etc. The Lord wants us to enter into the feelings *He* has for us. Some believers need to repent of longing to have another’s calling, gifting, family background, appearance, etc.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외모나 은사, 또는 사역이 아무리 작더라도 이를 멸시 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우리는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으로 인해, 그리고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외모나 능력, 성품, 그리고 가족이나 부모, 국적 등과 같은 환경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 주님은 **그분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감정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어떤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부르심이나 은사, 가족 배경, 외모 등을 가지길 원하는 것에 대해 회개할 필요가 있다.

VI. OUR LOVE FOR OTHERS

다른 이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

- A. We are to love others in the overflow of God’s very own love (Jn. 15:12). This is a dynamic expression of the fellowship of the burning heart. The Lord wants us to enter into what He feels about others—it will change the way we see people and how we respond to them.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요 15:12). 이것은 불타는 마음의 교제가 역동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이 다른 이들에게 대해 느끼시는 감정을 느끼기를 원하시며, 이는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법을 바꾸며, 그들에게 반응하는 방법을 바꾸게 된다.

¹²“*This is My commandment, that you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Jn. 15:12)

¹²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 15:12)

- B. The first and second commandments are deeply connected to each other and cannot be walked out separately. We are to love believers who mistreat us, because God loves them as He loves us.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분리되어서 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 대하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 C. We will forever delight in one another in the way in which God loves and delights in His people. Our love for others must extend beyond loving only the people who enjoy the same things that we enjoy. We must not only love the “cool” people, those who are popular and powerful and can enhance our status, etc. Stronger believers are to actively love weaker believers out of a heart of genuine compassion, rather than “loving them” in order to gain something from them.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영원히 서로를 기뻐하게 될 것이다. 다른 이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와 동일한 것을 즐기는 이들만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확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인기가 많고 영향력이 있고, 우리의 지위를 향상시켜줄 수 있는 “멋진” 사람들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 강건한 성도들은 연약한 성도들을 진실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며, 그들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